

7 광주일보
제17496호 2006년 7월 11일 화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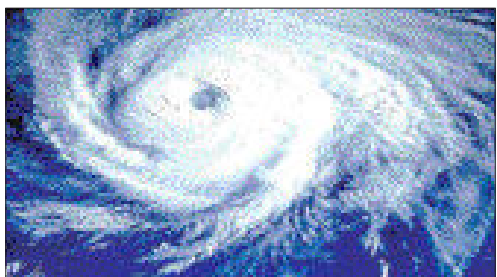
1시간 폭우에 온동네 '아수라장'

'태풍의 눈' 따라서 안전이동 가능할까

'태풍의 눈' (사진 가운데)을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는 것은 가능할까?

태풍의 중심인 '눈'은 지름 30~60km 크기. 부근은 기압 차로 인한 경도력(傾度力)과 원심력(遠心力)이 엄청나게 커 평형을 이룬다. 이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기류가 들어가지 못하고 중심 둘레를 돌면서 상승하는 반면, 중심부에는 하강기류가 생겨 구름이 소멸되고 비바람이 그친다. 맑은 하늘이 보이기도 한다.

이론적 계산에 의하면 태풍 주위와 중심과의 기압차가 클수록 태풍 '눈'은 작으며 복잡할수록 커진다. 저위도 지방에서는 확실히 나타나지만 중위도로 북상할수록 그 존재가 흐려지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이



지름 30~60km 바람 없고 하늘도 맑아
시속 20~60km 속도 '정확히' 따라가야

다. 형상은 대체로 원형이지만 때로는 타원형이 될 때도 있다.

이 때문에 태풍의 진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속도에 맞춰 이동한다면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시속 20~60km인 태풍의 속도에 맞춰 '정확히' 도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이런 조건을 맞추기는 거의 힘들다. '에위니아'처럼 주변의 갑작스런 기상 상태 변화로 진로가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이다. 또 육지에서는 바다와 달리 세력이 약해지면서 뚜렷한 '눈'이 사라지는 까닭에 '눈'을 식별하기도 어렵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민항기를 탄 사람 중에는 태풍의 눈을 뚫는 사람도 있지만, 이 역시 태풍은 통상 지상 5~10km에 위치하고 민항기는 6km 높이로 날기 때문에 태풍의 '눈'을 뚫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국의 경우 태풍의 공기벽을 뚫고 '눈'에 비행기를 보내 연구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고 한다.

/이승배기자 ls54@kwangju.co.kr



보성군 벌교읍 선근마을의 한 주민이 인근 '칠동천'의 범람으로 반쯤 물에 잠긴 집을 돌아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에위니아 진로 왜 바뀌었나

중국쪽 편서풍이 오른쪽으로 밀어내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중국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했던 제3호 태풍 '에위니아'(EWINIAR)의 진로가 변경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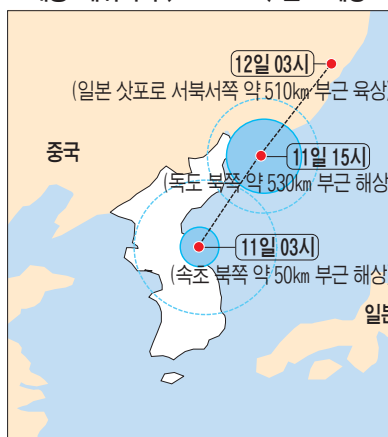
기상청은 "'에위니아'가 11일 오전 9시 속초 북북 동쪽 약 210km 부근 해상을 거쳐, 이날 밤 9시에 일본 삿포로 서쪽 약 530km 부근 육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태풍은 10일 오전 10시50분께 진도 해안에 상륙한 뒤 빠른 속도로 북동진

했다. 이는 예상과는 달리 오른쪽으로 치우친 것이다. 기상청은 당초 태풍이 서해상을 따라 북상해 중국 쪽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했다.

태풍의 진로가 바뀐 이유에 대해 기상청은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이 태풍을 옆으로 밀어냈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또 "일본 북동쪽에 중심을 둔 차고 습한 성질의 변질한 오호츠크성 고압대가 남동쪽으로 약간 밀렸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 태풍 '에위니아'(EWINIAR) 진로 예상도



장마철에는 키가 큰 '거인' 북태평양 고기압과 '난쟁이' 오호츠크해 고기압이 세력다툼을 벌이는데, '에위니아'의 경

아 생긴 침수였다. 벌교읍에는 이날 하루 동안 173mm의 비가 쏟아졌다. 특히 오전 9시부터 1시간 동안 46mm가 집중됐다.

"89년도 인가 태풍 '올가' 때도 온 동네가 물에 잠겼는데, 어찌 또 이런 일이..."

방앗간으로 피한 정원지(84) 할머니의 손에는 달랑 라면 3개가 들려있을 뿐이었다. 손주 녀석의 장난감도, 아들부부가 아까는 비디오도 갖고

나올 수 없었다. 1시간 후인 오전 11시에야 소방대원 50여 명이 양수기 13대로 물을 빼기 시작했다. 오후 2시30분부터는 주민들도 가세해 가재도구를 하나둘 건져냈다. 물빼기 작업은 오후 6시까지 마무리됐다.

하지만 6가구 20여 명의 주민들은 대피소도 마련되지 않아 인근 친인척집을 찾아 지친 몸을 쉬어야 했다.

최영규(37)씨는 "하늘이 원망스러울 뿐"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복구작업을 해줬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또 벌교읍 하수관거정비공사 현장에 널린 건설 자재가 배수관 입구를 틀어막으면서 역류했다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보성군이 지난해 1월부터 벌교읍에서 벌여온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채 끝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임정형기자 jhlim@kwangju.co.kr

/보성=안구일기자 giahn@kwangju.co.kr



연제2동립회
대주 피오레
1,300여 부지 중 353부지 353부지
문의 (062)366-4220

태풍 속 기상청 홈페이지 '먹통'

○태풍 '에위니아'가 광주·전남을 관통하면서 큰 피해가 발생한 10일,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가 접속불량을 보여 재해에 모에 구멍이 뚫렸음을 반증.

○기상청 홈페이지는 이날 오전 9시를 전후해 접속불량이 시작돼 하루종일 '먹통' 상태였다. 접속을 시도하면 오류가 발생해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는 등 제 기능을 못했으며, 광주지방기상청 홈페이지(http://gwangju.kma.go.kr)도 화면이 늦게 뜨는 등 장애가 발생.

○기상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순간 동시 클릭 수가 1천892회를 넘어 용량이 한계에 달했기 때문이었다"며 "태풍이 북상하면서 9일부터 홈페이지에 접속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다 10일 오전 접속자가 폭주하는 바람에 서버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해명.

○홈페이지 기능이 마비되자 기상청에는 네티즌 및 일선 행정기관의 문의와 항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고.

/이승배기자 ls54@kwangju.co.kr

좋은 사람, 좋은 여행 - 상품은 여행과 함께 하면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우석여행 **우석여행** **우석여행**

<p>제주유망 일본 큐슈크루즈 선 399,000</p>	<p>우석여행 2,380,000 2,880,000 3,380,000 2,090,000 999,000 1,168,000 899,000 1,149,000</p>	<p>우석여행 2,490,000 2,490,000 3,490,000 2,590,000 1,850,000 1,850,000 2,590,000</p>	<p>우석여행 1,049,000 1,149,000 1,049,000 1,049,000 1,049,000 1,049,000 1,290,000</p>
--	--	--	--

우석여행 **우석여행** **우석여행**